13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성신(가운데)이 14일 중국 선전 룽화 문화체육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표은 1골 1도움을 기록한 성신의 활약으로 시리아에게 2-1 승리를 거뒀다. 대한축구협회

日 꺾고 조별리그 전승 '야심'

U-20 축구대표팀 조1위 쾌조
"내일 일본전 필승" 사기 충천
승리하면 19년 만에 전승 감격
日은 지면 탈락… 총력전 예상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한 이창원호가 한·일전에서 조별리그 전승에 도전한다.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0일 중국 룽화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D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앞서 시리아(2-1), 태국(4-1)을 차례로 물리쳐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한·일전에서 패해도 조 2위까지 오르는 8강행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승전고를 울려보겠다는 각오다.

2020년대 들어 성인대표팀은 물론이고 각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패하는 경우가 잦아 이번 한·일전에서 승리한다면 더욱 값진 성과가 될 터다.

백민규가 14일 2025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2023년 태국에서 열린 AFC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패했다. 당시 대표팀에 홍성민(포항), 윤도영(대전), 진태호(전북) 등 이번 이창원호 선수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일전에서 이기면 대표팀은 19년 만의 조별리그 전승 기록도 이룬다. 한국은 인도에서 열린 2006년 대회 이후로는 U-20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전승을 거둔 적이 없다.

2경기에서 6골을 뽑아낸 화력이 이창원호의 강점이다.

태국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낸 '유럽파' 김태원(포르티모넨스)을 필두로 백민규(인천), 박승수(수원), 성신(부천), 윤도영(이상 1골) 등 여러 공격수가 골맛을 봤다.

아직 마수걸이 득점은 올리지 못했으나 고공 플레이는 물론 강력한 슈팅까지 보유한 장신 스트라이커 하정우(성남)도 매섭다.

득점포의 파괴력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간혹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으로 몇 차례 위기를 자초한 수비라인을 잘 정비한다면 일본전 승리 가능성은 커진다.

일본은 1차전에서 태국에 3-0으로 낙승했으나 시리아와 2차전에서 선제 실점하며 끌려간 끝에 2-2 무승부에 그쳤다. 일본은 한국에 패하고 시리아가 태국에 승리한다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6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을 겸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3년 만이자 통산 13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아듀 배구여제… 은퇴식도 역대급

김연경 은퇴 투어, 7개 구단서 V리그 최초 진행

'배구 여제' 김연경(36·흥국생명·사진)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한국 여자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의 마지막 경기를 기념하는 은퇴 투어가 진행된다.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회의실에서 열린 단장 간담회 때 김연경의 은퇴 투어가 논의됐고, 김연경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단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IBK기업은행이 16일 흥국생명과 홈 경기 종료 후 자체 은퇴식을 열어준 게 마중물이 됐다.

은퇴식에서 김호철 기업은행 감독이 화성종합체육관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김연경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고 기업은행 선수들도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단장 간담회에선 "기업은행이 진행했던 수준의 은퇴식 행사를 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005-2006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던 김연경은 2020 도쿄올림픽을 마친 뒤 국가대표를 반납했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김연경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기는 정규리그 7경기와 흥국생명이 직행을 예약한 챔피언결정전이 5차전까지 갈 경우 최대 12경기에 불과하다.

정규리그 7경기 가운데 흥국생명의 안방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진행되는 3경기를 뺀 4경기가 방문 경기다.

2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 원정 경기가 두 번째 은퇴 투어 경기다.

현대건설은 김연경 은퇴식을 위해 투어의 출발점이 된 기업은행에 진행 매뉴얼을 문의했다.

이후 내달 1일 정관장전(대전 충무체육관), 11일 페퍼저축은행전(광주 페퍼스타디움), 20일 GS칼텍스전(서울 장충체육관)으로 원정 고별 은퇴 투어가 이어진다.

트럼프 손녀·우즈 아들, 특급 대회서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와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다음달 열리는 주니어 골프 대회에 함께 출전한다.

미국 골프 채널은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래니트빌의 세이지 밸리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세이지 밸리 주니어 인비테이셔널 출전 선수 명단에 카이와 찰리가 포함됐다고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세이지 밸리 주니어 인비테이셔널은 남녀 최정상급 주니어 선수 60명만 출전해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 특급으로 꼽힌다.

주니어 랭킹 1위 루크 콜턴부터 6위까지 출전하는 등 랭킹 150위 이내 선수들이 출전자 명단에 포진했다.

우즈와 함께 걷는 카이 트럼프(왼쪽). AFP=연합뉴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